

觀賞樹의 特性과 分類

이 여 하

<견대 농대 교수>

- ……이번호부터는 양계가들이 양계장주의의 관상수를 재배, 부업으로하는데……○
- ……도움이 되도록 관상수 재배를 위한 시리즈를 개제하기로 했다. 집필은 건국……○
- ……대학교 농과대학 이여하고수가 본 월간양계 독자를 위해 계속 집필해 주기로……○
- ……했다. 아무쪼록 독자들에 많은 도움이 될것을 기대한다. ………………○

<편집자>

1. 서 론

우리나라에는 약 700여 종의 수종과 변종(變種)을 합하면 약 1,200 여종의 많은 수목이 생육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침엽수는 변종을 합하여 60여종에 달하고 나머지는 활엽수로 주로 중부이남에 분포 생육되고 있다.

이와같은 많은 수종이외에도 근년에는 외국에서 각기 다른목적으로 신품종 또는 유사 수종들이 도입되고 있어 우리나라에는 실로 많은 수종이 번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많은 수종의 분포는 기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남에서부터 북으로 난대, 온대, 한대 지역으로 대별되고 특히 온대지방이 대부분으로 이 지역에 많은 수종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같은 기후대는 식물의 분포와 생육범위를 달리 할뿐아니라 한 지방에 있어서도 건조한곳 습한곳 북향한곳 남향한곳 바람이 강한

곳 지력이 약한 곳 시냇가 산마루등 나무가 자라는데 환경적인 여러가지 요소들이 작용하여 식물의 자연분포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많은 수종들은 각기 다른 면에서 고찰되어 각각 그 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임업용수종, 즉 재목이나 열매 기타 부산물을 위하여 식재되는 조림용 수종은 수십종에 불과하고 경관(景觀)을 나타내는 풍치림 조성용수종이나 정원에 식재되는 관상수(觀賞樹) 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종은 수적으로 제한된 느낌을 주고있으나 앞으로 많은 개발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사히 큰 봄을 일으키고 있는 관상수개발문제는 앞으로 재고할 절도 많거나 외국에서 탈피하여 좀더 넓은 차원에서 볼때 앞으로 관상수 재배는 새로운 감각에 따른 식물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앞으로 관상수 재배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을 위하여 식물에 대한 생태적인 면과 식물의 일반적인 특성을 주로 하여 몇가지 기술하고 직접 재배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취급하여 오고있는 관상수는 주로 가옥의 주변, 정원에 식재하는 수종을 주로 다루어 왔으나 앞으로는 뚫안에서 뚫밖으로 즉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범모하여 가고 단목보다는 집단 또는 혼식이 필요하고 크기에 따라 집단이나 만경류도 중요하지만 교목과 같이 큰수목이 특히 앞으로는 화목류 계통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2. 관상수란

관상을 목적으로 재배되는 수목을 관상수라 하는데 특히 도시민의 기계적인 생활에서는 향시 자연에 대한 동경과 아울러 특히 자연 수목에 대한 애착이 큰 것이다.

수목에 대한 미는 형태미(形態美)와 색채미(色彩美)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목(單木)인 경우 수형(樹形), 수관(樹冠), 지엽, 꽃, 열매등의 공간에 대한 형태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 있나에 대한 미이고 색채미는 수목이 계절마다 형태가 변할 뿐 아니라 색채도 변하게 되므로 이 때 각기 다른 미관을 나타내는 미인 것이다.

즉 새잎이 움틀때나 신록의 싱싱한 모습과 꽃, 가을의 단풍과 열매등은 계절적인 감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다.

미의 형식원리(形式原理)는 미를 찾고자 하는 곳의 위치에 따른 다른 것과의 조화와 조합에 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낸다.

즉 단목에 의한 아름다움보다는 타 수종이나 동일수종이라 하더라도 여러개가 집단으로 나타날 때 더욱 미적인 감각을 강력하게 풍긴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취급하여 오고 있는 관상수는 주로 침엽 상록수를 중심으로 주로 가옥의 주변 정원에 식재하는 수종을 주로 다루어 왔으나 앞으로의 관상수는 둘안에서 둘밖으로 즉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변모하여 가고 단목보다는 집단 또는 혼식이 필요하고 크기에 따라 관목이나 만경류도 중요하지만 교목과 같이 큰 수목이, 특히 앞으로는 화목류계통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감이 든다.

이하 관상수목 재배에 있어 입지적 또는 형태 및 생육형 등에 대한 특성을 들어 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대체로 알려진 공해에 저항성이 강한 수종으로는 은행나무, 벽오동, 튜립나무, 향나무, 유도화, 사철나무 수양버들, 녹나무, 플라타나스, 개나리 등을 들 수 있다.

공해와 수목관계는 특히 관상수나 가로수가 대부분 도시에 식재되는 수량이 많으므로 관상수 재배를 위해서는 특히 공해에 강한 수종 선택문제를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이다.

3. 입지 및 환경적인 특성

식물의 입지적인 조건은 식물생육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식물을 옮길 때는 그 원산지를 알아야 그 환경과 기후적으로 적응범위를 알 수 있다.

난대성식물이 온대에서 성장이 부진하거나 고사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양의 성질, 비옥도 견습, 또는 방향에 의한 일광과의 관계 바람등 외적인 환경인자들에 크게 지배된다.

이하 몇 가지 환경적인 특성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음성(耐陰性)

식물은 잎에 광선을 통하여 동화작용을 하고 있지만 일광에 대하여 수광량(受光量)의 다소에 따라 즉 내음성에 따라 성장에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식재시 인위적으로 식재방향이나 나무위에 어떤 시설을 해줌으로서 효과를 볼 수 있고 관상의 어떤 목적은 이를 역이용하여 오히려 성장을 억제하므로서 관상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일반으로 그늘을 좋아하는 수종을 음수(陰樹) 반대인 수종을 양수(陽樹) 그 중간인 수종을 중간수(中間樹)라 하나 중간수는 음수로 취급함이 안전하다.

양수에 속하는 관상수로는 소나무 베드나무 벽오동, 측백, 느티나무, 은행나무, 툴립나무 배롱나무등 가장 많고 음수로는 주목, 금송, 사철나무, 동백나무, 비자나무, 전나무, 화백 편백, 조팝나무, 회양목등을 들 수 있고 중간수로서는 섬잣나무, 향나무, 잣나무, 단풍나무류 벗나무류, 목련, 철쭉류, 죽도화, 명꽃나무, 수국, 명자나무, 화살나무, 백목련, 후

박나무, 텁자나무등 여러가지를 들수 있다.

2) 기후대(氣候帶)

기후대는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의 경남 전남의 해안 및 도서지역은 연평균 14°C 로 이 지역을 난대지방이라하고 연평균 5°C 이상의 지역을 온대라하여 남으로는 경남 전남의 해안지역을 제외하고 북으로는 함남북 평북의 고원 고산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서 우리나라에 대부분을 차지한 지역이다. 온대지역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를 다시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눈다 서울지방은 온대 중부이고 대체로 해안 지역은 등온선이 북으로 올라가고 내륙지역은 반대로 내려오고 있다.

한대지역은 함경도 평안도의 고원 고산지역으로 연평균기온 5°C 이하의 추운지방이다.

난대에서 잘 생육하는 것은 동백 유도화 삼나무 편백 월계수 종려 가이쓰카 향나무 다마이부끼 목련 꽁꽁나무 돈나무 감탕나무등이고 한대지역에 생육이 가능한 것은 잣나무 첫나무 주목, 자작나무 라이락 낙엽송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등이고 대부분은 온대수종인데 대체로 난대식물은 온대지방에서 성장이 억제된다.

특히 어린유묘는 월동시주의를 하지 않으면 동해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되는 예를 많이 볼수 있는 것이다.

3) 입지 조건

동일지역의 토양조건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식물은 토양수파 분토양의 깊이에 따라 성장의 차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적운지 즉 습지 부식질 산도 토심(土深) 방향등에 알맞을 때는 식물은 성장이 왕성하나 그렇지 못할때는 성장이 위축한다.

그러나 좋은 조건이 아니더라도 버틸 수 있는 수종으로는 첫째 전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리기다 소나무 각종싸리류 은행나무 조릿대류 유카·해당화등을 들 수 있고 습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것으로는 향나무 벽오동 베드나무류 낙엽송 죽도화 삼나무 백찰쭉등이

며 토박한 땅에서도 자랄수 있는 것으로는 자귀나무 박테기나무 소나무류등을 들수 있다. 식물은 뿌리의 모양에 따라 토심에 대한 요구도가 다르다.

즉 직근(直根)이 발달한 것은 심근성(深根性)이고 적근보다는 측근(側根)이 발달한 것은 일반적으로 천근성(淺根性) 수종이라 할 수 있다.

심근성 수종으로는 대부분이 교목으로서 나무를 이식할때 주의를요하는 수종으로서 느티나무 전나무 등이 대표적이며 천근성수종은 특히 바람맞이에서는 넘어지는 일이 많은데 베드나무 가문비나무 벚나무 삼나무 편백 화백 측백나무 기타 관목류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교목으로서 천근성 수종은 식재시 식재방향에 주의할 일이다.

4. 수목의 형태에 따른 분류

수목의 외형적인 특징은 그 나무의 가치판단의 가장 큰 기준이된다.

따라서 나무의 외형적인 여러가지 특징은 관상의 목적에 따라 수종 선택도 달라질 것이고 수목의 위치배열에도 차이가 있게된다.

수목은 형태에 따라 상록수와 낙엽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록수(常綠樹)는 연간잎이 가지에 붙어있는 ever green의 수목으로서 삭막한 겨울에도 각기 특징있는 잎의 모양에 따라 그 특색을 나타낸다.

난대지방의 고유수종들은 상록수가 대부분이나 온대 한대지방에는 많지 않다. 상록수로는 소나무류, 사철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편백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첫나무, 잣나무의 침엽수의 동백나무 사철나무 등의 활엽수를 대표로 들 수 있다.

낙엽수는 가을에 낙엽이되어 수목사이로 광선이 투과되며 온대지방의 대부분의 활엽수들이 이에 속한다.

즉 튜립나무, 은행나무, 낙엽송, 단풍나무, 목련등

수형에 따라 분류하면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闊葉樹)로 분류할 수 있으며 침엽수는 대

개 상록이며 수형이 직선적이며 대체로 삼각 모양을 한 것이 특징이며 활엽수가 잎이 넓고 그 지엽이 활달하게 바람에 움직이며 그 색체가 연하고 마음에 흐뭇한 감상을 주는데 대하여 침엽수는 색깔이 진하여 대체로 우울한 감이 듈다.

활엽수는 온대지역에서는 대부분이 겨울에 낙엽이지고 관상수로서는 주로 화목류가 이에 속하거나 단풍나무와 같이 잎의 색깔에 따라 중요시 되는 것도 있다.

다음에 생활에 따라 살펴보면 교목 관목(灌木), 만성목(蔓性木)으로 분류되어 이들은 각기 외형미를 강력히 뽐기는 것으로 다른 구조물이나 이웃나무의 조화미를 살리는데 중요한 성질인 것이다.

교목으로서는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등과 같이 지하고(枝下高)가 일반적으로 8m 이상인 수종이고 관목은 8m이하인 수종으로서 주간(主幹)이 없으며 대체로 부정지가 많이 발생하여 다발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라이락 박테기 무궁화 조팝나무 각종 싸리나무와 희양목 사철나무등을 들 수 있으며 만성목은 출기가 있어 스스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다른나무에 붙어 살든지 땅에 기어난다.

만성목은 주로 다른 시설물에 부착시켜 이미 조화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능소화 크레마티스 등나무 포도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 수목이나 잎 또는 열매의 색채 또는 색조에 의하여 분류되는데 관상수는 이와같은 특징적인 것에 의하여 배식(配植)되는 경우가 많다. 수목의 색채 보통 수간에 흑갈색을 띠고 있으나 자작나무는 백색 주목이나 소나무는 붉은 색을 대부분의 어린 활엽수들의 줄기는 녹색을 나타낸다.

잎의 색체는 계절감각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황시 변화한다.

계절별로 잎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초록색은 낙엽송, 독일가문비나무, 사철나무, 수양버들, 후박나무등을 들 수 있고 붉은 색은 참죽나무 사철단풍나무 등이 있다.

단풍이 아름다운 것으로 단풍나무 감나무

산딸나무 신나무 불나무 화살나무 신나무 담장이 덩굴매자나무등은 붉은 색을 나타내며 은행나무 백합나무 고로쇠나무 침엽수등과 낙엽송등은 노란색을 나타낸다.

이와같은 색깔은 사철단풍과 같이 계속 붉은 색을 띠우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수목은 단풍기의 짧은 기간 그의 극치를 이룬다 다음에는 꽃의 색채를 들 수 있는데 특히 활엽수의 대부분은 꽃에 의한 관상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색깔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는 감각의 차이가 현저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이와 같은 화목류 재배가 유망시된다.

꽃의 색깔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분홍꽃이 피는 종류로는 애기씨꽃, 겹해당화, 장미, 박테기나무, 철쭉꽃, 진달래, 무궁화, 꼬리조팝나무, 배롱나무 자작나무, 벚나무 살구나무, 매화나무등이고 흰꽃이 피는 나무로는 불도화 함박꽃나무, 백목련, 산목련, 산사나무, 개쉬땅나무, 조팝나무, 이팝나무, 매화나무, 후박나무, 장비등을 들 수 있으며 붉은 꽃이 피는 것으로는 모란, 석류, 병꽃나무 장미, 동백나무, 능소화나무로 들 수 있고 노랑꽃이 피는 것은 개나리, 황매화 매자나무, 생강나무, 산수유, 백합나무, 장미 꿀으로 보라빛꽃이 피는 것으로는 차목련, 라이락, 수국 오동나무를 대표로 들 수 있다.

5. 공해수종

수목에 대한 공해 문제는 도시수목 특히 가로수 공원 기타 주택이나 공장지대의 녹지대 형성을 위한 수목에 대하여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류가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자의적인 생활 보다도 기계적인 생활 특히 공기 오염이나 소음등 실로 도시공해는 많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가닥 나무에 의지하여 정신적인 피로를 푼다면가 깊은 명상에 잠길 때 또는 직접적인 공기 오염을 방지 할 목적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많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해에 강한 수종이 도시미화를 위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목에 대한 공해로는 자동차의 배연가스가 가장 크고 공장지대의 이황산가스 또는 도로변의 자동차의 진동 지하나 지상의 여러 가지 시설물등에 의하여 도시주변의 나무가 고사되는 것이다.

대체로 알려진 공해에 저항성이 강한수종으로는 은행나무, 벽오동, 튜립나무, 향나무, 유도화, 사철나무, 수양버들, 농나무, 풀라타나스, 개나리 등을 들 수 있고 아주 약한 수종으로는 적송, 천나무, 히마라야시다, 화백연백나무를 들 수 있다.

공해의 수목관계는 특히 관상수나 가로수가 대부분 도시에 식재되는 수량이 많으므로 앞으로 관상수재배를 위해서는 특히 공해에 강한 수종선택문제를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이다.

6. 맷는 말

이상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관상수재배에 있어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외형적인 수성과 특히 입지적인 조건에 대하여 약술하였다.

관상수는 공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을 때 사람에게 강력하게 정신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특성을 지닌 수종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상록수를 택하는 비율이 많고 외국인을 푸르름보다는 꽃에 더 매력을 갖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국내수요가 채워지고 외국수출을 전제할 때에는 중요시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입지적인 요인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기후적으로 맞지 않는 묘목을 남이 좋아 하니까 남쪽 난대지방의 묘목을 서울에 이식하여 실패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나무는 각기 그지역의 중심향토내에서 생육이 왕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지조건에 특히 유의하여 수종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속>

삼성케이지

사료 첨가제
예방제
치료제
치백제
소독약

신속배달발송

대한양계협회 전남지부
광주지구 부로일러협회
사무실

광주시 서구 서동 47-8
(대창석유 주유소 앞)

TEL 3-1328

삼성가죽약품상사

주식회사 유한양행
대한신약공업주식회사
대성미생물연구소
한국화이자주식회사
태평케미칼주식회사
S F 과학사료공사
세광양행
각종가죽약품
전남대리점